

오케이온골프웹진을 스마트폰에서 보기 위해서는 어도비아크로벳리더(Adobe Acrobat Reader)가 필요합니다. 어도비아크로벳리더는 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 설치한 후 웹진을 보시면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 : www.uslpga.kr 캡처

장하나, LPGA HSBC 챔피언스 우승 '시즌 2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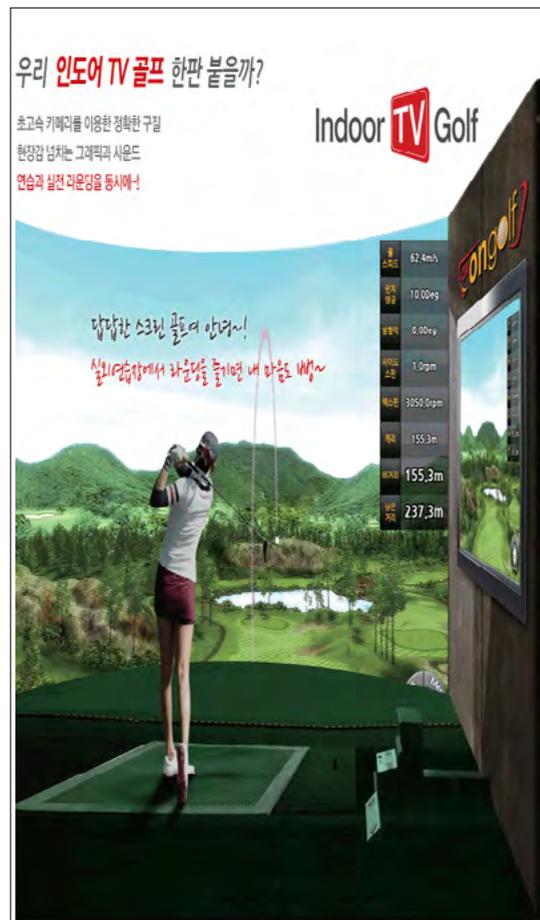
장하나(24·BC카드)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2016시즌 가장 먼저 2승을 챙겼다. 6일 싱가포르 센토사골프장 세라폰코스(파72·6600야드)에서 끝난 HSBC위민스챔피언스(총상금 15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1개와 버디 6개, 보기 1개를 묶어 7언더파를 몰아쳐 2위와 4타 차 우승(19언더파 269타)을 일궈냈다. 지난달 초 코츠챔피언십에 이어 시즌 2승째, 우승상금은 22만5000달러(2억7000만원)다.

LPGA 투어 데뷔 첫해이던 작년 준우승만 4번에 그쳤다 지난달 코츠 챔피언십에서 마침내 첫 우승을 차지한 장 하나는 가장 먼저 시즌 2승을 달성한 선수가 됐다. 한국은 시즌 개막전 바하마 LPGA 클래식에서 우승한 김효주(20·롯데)를 포함해 시즌 3승째를 기록했다.

대회 마지막날 1타 차 단독 선두로 시작한 장 하나는 전반에 3타를 줄이며 순항하다 11번홀(파4)에서 위기를 맞았다. 티샷을 오른쪽 러프로 보낸 장 하나는 두 번째 샷을 나무에 맞혔다. 세 번째 샷으로 레이업한 장 하나는 네 번째 샷을 홀 1.5m에 붙인 뒤 보기를 막았다. 장 하나는 12번홀(파5)부터 14번홀(파3)까지 3홀 연속 버디로 펄럭을 4타 차로 따돌렸다. 18번홀(파5)에서는 과감하게 세컨드샷으로 워터 해저드를 넘겨 2온에 성공한 뒤 2m 이글 퍼트로 팬서비스도 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5개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두 개나 챙겼다'는 사회자의 말에 장 하나는 "연습을 많이 하면서 플레이가 편안해졌다"고 답했다. 그는 올해 5개 대회에 출전해 모두 톱10에 진입했다.

장 하나는 이번 우승으로 세계랭킹을 10위에서 5위로 끌어올렸다. 한국 선수 중에는 2위 박인비(28·KB금융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로써 장 하나는 최대 4명까지 나설 수 있는 리우 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성큼 다가섰다. LPGA 시즌 상금랭킹에서도 56만668달러로 1위를 굳게 지켰다.



렉시톰슨, 혼다 타이랜드LPGA 우승



한국계 노무라 하루, 생애 첫 LPGA우승



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 정예나 우승

렉시 톰슨, 혼다 타이랜드LPGA 우승

전인지 준우승



렉시 톰슨(미국)이 2016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혼다 타이랜드(총상금 160만달러)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미국 여자골프의 간판으로 떠올랐다. LPGA 투어를 대표하는 장타자 톰슨은 대회 마지막날 이글 1개와 버디 3개에 보기는 1개를 곁들여 4언더파 68타를 쳤다. 나홀 동안 합계 20언더파 268타로 지난해 10월 인천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우승 이후 4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하며 LPGA 투어 통산 7번째 우승을 거뒀다. 우승 상금은 24만달러(약 2억9,800만원).

이번 대회 첫날과 셋째 날 무려 8타씩을 줄이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톰슨은 이로써 올 시즌 개막 초반 한국 및 한국계의 우승 행진을 막으며 미국의 자존심을 살렸다. 톰슨은 이번 우승으로 현재 0.74점 차이인 세계여자골프 랭킹 3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를 밀치고 세계 3위로 올라서면서 지각 변동을 예고했다.

루이스는 작년에 우승 없이 준우승만 6차례였지만, 톰슨은 메이저 LPGA 클래식 등에서 2승을 추가했다. 지난 시즌에 톰슨은 드라이버 샷 평균거리 267.64야드로 이 부문 4위에 올랐고, 올해의 선수상 포인트 4위, 시즌 상금은 5위를 기록했다.

한편, 이날 경기는 중반까지 전인지가 따라붙으면 톰슨이 도망가고, 다시 전인지가 거세게 추격하면 톰슨이 따돌리는 양상이었다가 후반에는 전인지가 다소 흔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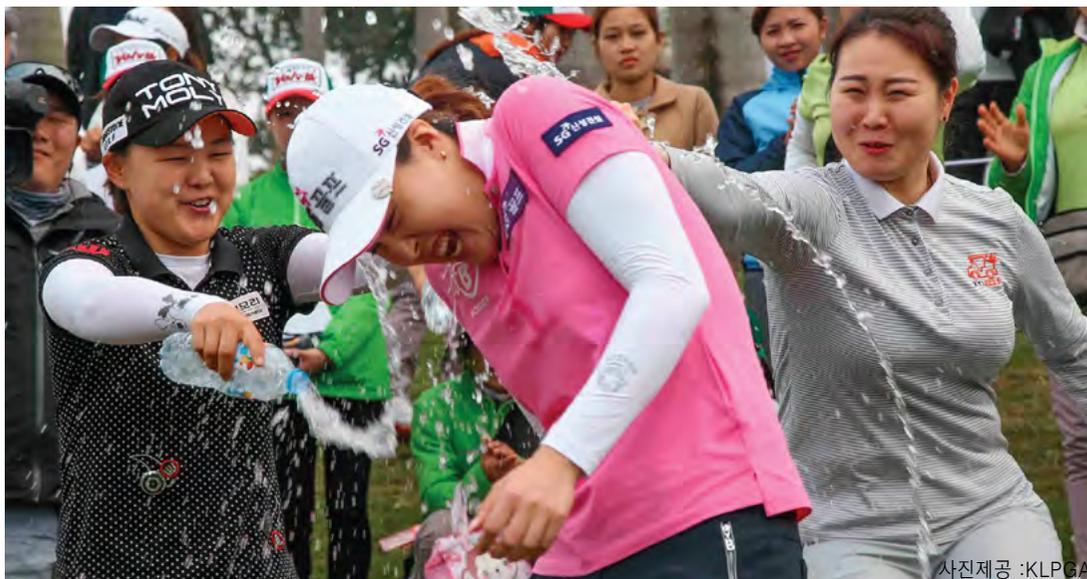
전인지는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4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2타를 줄였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의 성적을 낸 전인지는 단독 2위로 마무리하면서 이달 초 치른 데뷔전(코츠 챔피언십) 공동 3위에 이어 LPGA 정식멤버로 나선 두 대회에서 모두 '톱3'에 이름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전날 3라운드까지 1위 톰슨에게 4타 뒤졌던 전인지는 초반에 절정의 샷 감으로 순식간에 톰슨을 1타 차이로 압박했다. 전인지가 1번홀(파5)부터 3번홀(파4)까지 3연속 버디를 잡은 동안 한 조에서 동반 경기한 톰슨은 같은 홀들에서 파를 기록했다.

전반 9개 홀을 마쳤을 때만 해도 전인지는 톰슨과 2타 차를 유지하며 역전 기회를 노렸다.

그러나 후반에 들어선 톰슨은 10번홀(파5)에서 이글을 뽑아낸 데 이어 15번홀(파4)에서도 버디를 보냈다. 그 사이 전인지는 10번홀부터 16번홀까지 버디-보기를 세 차례 반복하며 제자리걸음을 했다. 둘의 간격이 5타 차까지 벌어졌다.

팽팽하게 간격을 유지하던 전인지는 그러나 17번홀(파4)에서 더블보기를 적으면서 우승에서 멀어졌고, 이날 무려 8언더파를 몰아친 제시카 코르다(미국), 디펜딩 챔피언 양희영(27·PNS)에게 한때 공동 2위를 허용했다. 18번홀(파5)에서도 한 차례 고비가 있었다. 두 번째 샷이 그린 옆 벙커에 빠진 전인지는 부담스러운 벙커샷을 잘 막아낸 뒤 버디를 기록, 단독 2위로 다시 올라서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 with SBS, 정예나 우승

베트남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윈터 투어' 대회에서 정예나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베트남 하노이의 스카이 레이크 리조트 & 골프 클럽에서 열린 '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 with SBS' 최종 라운드에서 정예나는 2타를 줄여 합계 3언더파를 기록했으며 2위인 최가람을 1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라 우승 상금 4천만 원을 받았다.

올해 28살인 정예나는 지난 2006년 KLPGA에 입회해 2부 투어 우승 경력은 있지만 1부 투어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중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상금왕 출신이라는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내던 그는 골프를 그만두려다 시험 삼아 지난 2012년 출전한 중국 대회에서 시드(시즌 출전권)를 따냈

고 이듬해 상금왕과 신인왕을 석권했다.

이번 대회는 KLPGA가 처음으로 치른 윈터 투어 대회로 KLPGA 정규 투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총상금 2억원, 우승상금 4천만 원을 놓고 43명의 선수가 2라운드 경기를 펼쳤다.

윈터 투어는 동계훈련 중인 선수들에게 대회 출전을 통해 실전에서 기량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KLPGA가 '글로벌 투어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KLPGA대회가 베트남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3월에는 베트남 달랏에서 또 하나의 윈터 투어 대회인 '더 달랏 at 1200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KLPGA 정규투어 대회로 열린다.

노무라 하루, 첫 LPGA우승

한국계 일본 선수인 노무라 하루(일본·한화)가 세계랭킹 1위인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를 제치고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우승을 거머쥐었다. 그는 지난달 21일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애들레이드의 그레인지 골프클럽에서 끝난 ISPS 혼다 호주여자오픈에서 일본 국적 선수로서 정상에 올랐다. 특히 리디아 고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최종라운드 한때 리디아 고에 공동 선두를 허용하기도 했지만, 후반 3개 연속 버디를 잡아내면서 단독 1위로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노무라는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곳은 일본 요코하마지만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한국에서 나왔고, 한국 주니어 무대에서 '문민경'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뛰기도 했다.

노무라는 지난해 한화와 계약한 뒤 그해 9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상금이 가장 큰(우승 3억원) 한화금융 클래식에 초청선수로 출전에서도 우승했다.



사진 : LPGA.COM 캡처

KPGA 코리안투어 역대 최고령 합격자

‘오뚝이’ 박부원의 끝없는 도전



"올해는 KPGA 코리안투어와 KPGA 챔피언스투어를 오가며 활동할 것입니다. 아직 할 수 있다는 것을 팬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1992년 KPGA 투어프로(정회원) 자격을 취득해 올해로 프로 데뷔 24년째를 맞이한 박부원(51.링스)이 2016 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각오를 전했다.

박부원은 지난해 치러진 KPGA 코리안투어 QT(Qualifying Tournaments) 에서 공동 27위에 올라 올 시즌 투어 카드를 손에 넣었다. 1965년생인 그는 50세 4개월 7일의 나이로 '역대 최고령 KPGA 코리안투어 QT 합격자' 라는 타이틀까지 차지했다.

박부원에게는 항상 '오뚝이', '인간 승리' 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운동 선수로는 치명적인 당뇨병을 딛고 우승컵을 품에 안은 이력 때문이다.

2001년 당뇨병 판정을 받은 그는 2004년부터 허리춤에 인슐린 주입기를 차고 대회에 출전했다. 2006년 '메리츠 솔모로 오픈' 에서 프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할 때도 그의 몸에는 인슐린 주입기가 있었다.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체력을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고 이겨내며 우승컵을 들어올려 '인간 승리' 의 주인공으로 주목 받았다.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이번 우승이 남모르는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사실 박부원은 1999년 'SK telecom OPEN' 에서 먼저 첫 우승의 기회가 있었다. 1라운드에서 이른파로 타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이후 3일 동안 60대 타수를 치며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로 박남신(57), 김완태(54)와 동타를 이뤄 연장전을

펼쳤다. 첫 우승에 부풀어 있던 그는 연장 두 번째 홀에서 보기를 범해 파를 잡아낸 당대 최고의 스타 박남신에게 우승컵을 내주고 말았다.

이에 대해 박부원은 "연장 접전 끝에 저서 굉장히 아쉬웠다. 좌절도 했었다. 하지만 끝까지 우승 경쟁을 펼친 것이 훗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돌아왔고 한 단계 성장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고 회상했다.

꾸준히 투어 생활을 유지하던 그는 2009년 KPGA 코리안투어 상금순위 83위에 머물며 투어 카드를 잃고 말았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 KPGA 코리안투어 QT에서 공동 12위에 올라 투어 복귀에 성공했다.

이후 투어에서 부진이 계속돼 투어 카드를 잃어도 QT를 통해 거이코 투어 카드를 다시 획득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뚝이' 처럼 2014년까지 매년 시드를 잃고 QT를 통해 투어 카드를 획득하는 것을 무려 5년이나 반복했다. 특히 2013년 KPGA 코리안투어 QT에서는 아슬슬 되는 선수들과 겨뤄 공동 2위에 오르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다.

2014년 KPGA 코리안투어 QT 예선전에서 탈락하며 2105년 KPGA 코리안투어 무대를 밟지 못한 그는 만 50세 이상 선수들이 출전하는 KPGA 챔피언스투어로 눈을 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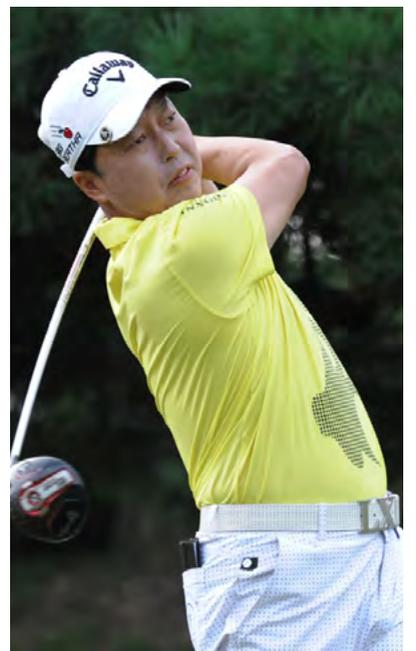
8월 24일 생인 박부원은 만 50세 기준인 생일이 지나자마자 2015년 9월 1일과 2일 펼쳐진 '제5회 그랜드CC배 KPGA 시니어 골프대회' 에 출전해 1999년 'SK telecom OPEN' 연장전에서 함께 대결한 김완태를 1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KPGA 챔피언스투어 데뷔전을 우승으로 장식하는 기쁨을 토해낸 것이다. 올 시즌 KPGA 코리안투어와 KPGA 챔

피언스투어를 병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박부원은 현재 태국에서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식단 조절에 신경쓰면서 당뇨는 많이 좋아졌다. 조금 불편할 뿐이지 경기력에 큰 영향은 없다." 고 공언한 뒤 "두 개의 투어를 함께 뛰려면 체력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체력적인 부분을 보완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부원은 2010년까지 인슐린 주입기를 달고 경기에 임했다. 이후부터는 인슐린 주입기를 몸에서 떼어내고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혈당관리를 하고 있다. 그의 연습량은 일반 선수들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지구력과 체력이 떨어진 탓이다. 그래도 골프 채를 손에서 놓지 않고 올 시즌 일본 시니어투어 진출까지 노리고 있다.

자료제공 : KPGA





OKongolf

Club Championship

네트워크 온라인게임으로 진행되는 OK온골프 스크린골프대회로써 **각매장, 동호회가 주관하여**,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OK온골프 챔피언십이라 칭하며, 각 클럽대회를 통하여 매장, 동호회의 친목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상 최고의 파라다이스

마리아나(MARIANA)

사이판, 티니안, 로타 등 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마리아나 제도는 아름다운 산호 해변과 사시사철 온화한 열대기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한 겨울인 12월부터 2월까지는 사이판의 건기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로 연일 쾌적한 날씨로 인해 마리아나를 즐기기에 최적의 시기이기도 하다. 휴양의 천국이라 불리며 지상낙원의 휴식을 제공하는 마리아나 지역은 가족 여행 및 골프, 수상 스포츠 등 휴식 및 모험을 선호하는 다양한 여행층에 이상적인 지상 최고의 휴양지이다.



사이판

사이판 섬은 제주도 크기의 10분의 1정도로 작지만, 코발트색의 푸른 해안과 천혜의 자연 환경 지니고 있는 지상 낙원과도 같은 섬이다. 서쪽 해안은 산호로 둘러싸여 있는 낮은 해안가로 이루어져 있어, 스노클링, 파라세일링, 제트 스키, 호핑 투어 같은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며, 동쪽 해안가는 서쪽 해안가와 달리 가파른 절벽과 해안가가 맞닿아 있어 절경을 연출한다. 사이판의 관광 명소로는 다음과 같다.

▷사이판의 진주 마나가하 섬

푸른 하늘, 에메랄드 빛 바다. 그리고 그 위에 떠 있는 작은 섬. 마나가하 섬은 사이판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르는 사이판 최고의 관광지다. 배로 15분이면 도착하는 이곳은 그저 바라만보고 있어도 눈이 호강하는 환상적인 풍경을 자랑하며 스노클링, 다이빙, 패러세일링, 바나나보트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의 천국이기도 하다.

섬 내의 레스토랑에서는 햄버거 등 간단한 식사를 10달러 정도의 가격에 즐길 수 있으며 음료와 맥주도 판매한다. 숭에서는 마나가하 티셔츠 등 기념품과 타올, 스노클링세트 등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다. 물놀이를 할 때 소지품이 거추장스러우면 코인 락커(2달러)를 이용할 것.

▷태평양 작은 섬 버드 아일랜드

섬의 북동부, 태평양을 향해 웅크리고 있

는 작은 섬이다. 석회암으로 형성된 섬의 작은 구멍 마다 새들이 살고 있기도 하지만, 섬 주변으로 치는 파도가 마치 새가 날개짓을 하는 것 같은 모양이어서 버드 아일랜드로 불린다. 육지를 향해 웅크리고 있는 거북 모양을 하고 있어서 거북을 행운의 상징으로 여기는 원주민들은 '거북 바위'라고 부른다. 전망대 위에 서면 왼쪽의 완만한 구릉과 그앞의 깨끗한 비치, 그리고 버드 아일랜드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버드 아일랜드 앞쪽의 바다로 멀리 나가면 세계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에 닿는다.

▷전쟁의 기억. 만세 절벽

사이판 최북단에 있는 80미터 높이의 깎아지른 절벽이다. 1944년 미군이 사이판에 들어오면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일본군인 및 일반인들이 천황 만세를 외치며 뛰어내린 곳이다. 쳐다만 봐도 무서운 깊고 질푸른 바다를 보노라면 사람들이 이곳으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게 만든 전쟁의 광기를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작은 돛들이 많이 잡힌다고 한다.

▷환상적인 물빛, 그로토

사이판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로 전 세계의 дай버들이 꼭 한번 가 보고 싶어하는 곳이다. 경사가 심하고 미끄러지기 쉬운 117개의 계단을 내려가면 작은 동굴이 나온다. 동굴사이로 엿보이는 푸른 물빛만 보아도 왜 이 곳이 그렇게 사랑 받는지 알

만하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아름다운 물빛이 동굴 안을 신비롭게 채우고 있다. 물속으로 들어가면 세 개의 터널이 있는데, 그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면 그야말로 환상적인 물빛을 볼 수 있다, 스노클링도 가능하다.

티니안

사이판에서 약 5km, 경비행기로 불과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티니안 섬. 면적 약 100km², 인구 2,000여 명의 목가적인 섬이다. 아름다운 비치는 유구한 세월을 걸쳐,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파도 소리뿐이다. 잊고 있던 자연의 숨소리를 들으며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다. 티니안 섬의 중심은 산호세마을, 시 청사, 경찰서, 병원, 교회, 은행 등 주요 시설은 이 곳에 모

여 있다.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정말 소박한 섬이지만, 1998년 티니안 다이내스티 호텔 & 카지노가 개관되면서 섬의 활성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

▷옛 족장의 집, 타가 하우스

산호세 마을에 위치한 타가 하우스는 옛 족장 타가가 살던 집의 흔적이다. 집을 지을 때 기둥으로 쓰던 테라스톤은 길쭉한 기둥에 반원구를 얹은 형태인데, 온전한 모양을 유지한 라테스톤 하나와 주변으로 흩어진 기둥과 반원구를 볼 수 있다. 예전에는 한쪽에 여섯 개씩 두 줄로 서 있었으나 태풍등의 영향으로 한 개를 남기고 전부 쓰러졌다고 한다. 족장 타가의 집은 두 줄의 라테스톤 위에 높게 지어져 일대를 내려다보며 부족의 삶을 살폈을 것으

사이판에서 남쪽으로 약 136km 떨어져 있는 로타는 투명한 바다와 때묻지 않은 풍요로운 자연이 최대 매력이다





로 추정된다. 현재 타가 하우스 주변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플레임 트리와 플루메리아 꽃을 보며 산책하기 좋다.

로타

사이판에서 남쪽으로 약 136km 떨어져 있는 로타는 투명한 바다와 때문지 않은 풍요로운 자연이 최대 매력이다. 로타는 태평양전쟁에서 폭격을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섬 전체에 원시림이 무성하게 남아 있다. 또한, 마리아나 제도에서 수질이 좋기로 손꼽히며 수돗물도 그대로 마실 수 있다. 물 밑 70m까지 보일 정도로 투명하여 다이버에게 인기있는 아름다운 바다 및 고대의 모습이 남아 있는 삼림, 그리고 유적과 동굴 등의 볼거리가 있다. 로타 섬에는 유일하게 골프장을 갖춘 리조트 호텔, 로타 리조트 & 컨트리 클럽이 인기를 끌고 있다.

▷빌리지의 풍경을 한눈에 송송 전망대 왼쪽으로 태평양, 오른쪽으로 필리핀해가 펼쳐진 가운데 웨딩케이크 산과 그 앞으로 조성된 길쭉한 송송 빌리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이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송송 빌리지는 이름처럼 귀엽고 오밀

조밀한 풍경을 보여준다.

▷로타의 새들을 만나는 버드 생추어리 로타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서식하는 새들을 볼 수 있는 야생조류 보호구역. 예쁜 전망대와 아래로 내려가서 새들을 좀 더 가까이 관찰할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전망대에 서면 멀리 수평선이 내려다 보이고,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절벽 아래 새들이 앉아있는 정글이 펼쳐진다. 가끔씩 새들이 비상하는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다.

▷산인가? 케이크인가?

웨딩케이크 산섬의 서남쪽 끝, 송송 빌리지 아래쪽에 위치한 낭만적인 이름의 산이다. 소산하야 만에 면한 일본군 대포 유적지에서 바라보면, 결혼식에 등장하는 2단 케이크처럼 생긴 산의 모습을 가장 또렷하게 볼 수 있다. 해발 143M의 산 속에는 도마뱀과 야생사슴, 산돼지 등이 서식하고 있다.

▷자연이 만들어준 수영장 스위밍 홀 바닷가의 암초들이 막고 있는 사이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천연 수영장이다. 질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암초 너머와는 달리 수영을 즐기기에 좋다. 하지만 파도가 거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마리아나에서 즐기는 환상의 라운딩!

오대양 중 가장 아름다운 태평양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이판은 제주도의 10분의 1 크기로 바다와 접하고 있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심신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사이판의 골프 투어는 바다를 보면

서 치는 라운딩이 환상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호주의 '백상어' 그렉 노먼이 설계한 36홀의 라오라오 베이 골프 리조트, 사이판 남쪽 바다와 접하고 있는 코랄 오션 포인트, 마나가하 섬 전경을 보면서 라운딩이 가능한 마리아나 컨트리 클럽 등 5개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여성 골퍼들이 좋아할 해변 용품부터 아기자기한 리빙용품, 마리아나 토속 상품 및 고가의 명품을 구매할 다양한 샵들이 준비하다.

-자료제공:마리아나 관광청 한국 사무소



골프계의 마당발, 모델 출신 방송인 안계범

“이제 가수 안계범입니다”

특정분야에서 남보다 뛰어난 사람을 가리켜 고수라 부른다. 골프는 자신과의 싸움이기에 남보다 뛰어난에도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 어렵다. 하지만 유쾌하고 배려깊은 라운딩으로 또 라운딩하고 싶게 만드는 골퍼, 모델에서 가수로 변신한 다재다능함의 소유자가 바로 안계범이다.

글 : 방석현기자 / 사진제공 : 안계범



연예인 골퍼단에서 골프계의 마당발로 슈퍼모델(Supermodel)은 모델 중에서도 신체적인 요건 및 끼와 재능이 뛰어난 모델들을 가리킨다. 다분한 끼와 재능으로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슈퍼모델골퍼단’ 연예계 골퍼고수로 알려진 모델 출신 방송인 안계범은 슈퍼모델 골퍼단의 상징과도 같다. “저 만큼 골퍼연습 안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대신에 스크린골프를 많이 치죠. 몇 년

전에 어깨를 다쳐서 팔에 엘보가 왔는데 그 이후 거리가 나오지 않아 걱정이었죠. 하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이란 말이 있듯이 숯계임을 연마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장타를 의식해 오비도 나고 뒷 땅치는 경우가 있는데 고수는 자기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파4에서 쓰리온에 원뿔으로 훑아오는 분이죠.”

골프계의 마당발이자 골퍼매니아인 그의

연평균 라운딩은 100회 이상이다. 많을 때는 120번 정도로 3일에 한번은 가는 꼴이다. 1부 첫 팀일 때는 밤새우고 나간 적도 많다는 그다.

“처음 골퍼칠 때를 회상해 보면 99년도에 SBS골프 프로그램이었는데 연습장에서 드라이버 스윙을 하는데 공도 못 맞췄어요. 두 번째는 기물 파손을 했죠. 그 방송을 3개월동안 했는데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연습장에 갈 때마다 주위에서 구경을 해서 연습에 몰두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절친인 (이)종원씨랑 2002년부터 다시하게 됐어요.

처음엔 월슨 연예인골퍼단이었어요. 가수 이승규씨를 단장으로 개그맨 이봉원, 박미선, 가수 신효범, 탤런트 이영범씨 등이 멤버였죠. 원래는 5년 계약이었는데 멤버들간 유대관계가 좋아 8년정도 활동했던 것 같아요.”

현재는 ASX연예인골퍼단으로 활동중인 그는 ‘너두나도골프’와 ‘벤츠골프동호회’를 운영중으로 그의 SNS는 지인들과 함께한 라운딩 사진들로 가득하다. 하나같이 즐거운 모습들이다.

“저는 맞춤형 골퍼를 칩니다. 상대방이 투어 또는 세미프로이면 저도 긴장을 하며 집중해요. 그러면 스코어도 좋습니다. 동호회사람들과는 달라요. 100타 이상인 분들과 치면 저도 맞춰드리죠. 즐기는 골퍼가 최고거든요. 몇 년전까지만 해도 300야드 이상 날려서 롱기스트를 수상하곤 했는데 어깨수술 이후로는 거리가 많이 줄어서 정확도 위주로 샷을 하고 있어요. 베스트는 2언더입니다. 9홀에서 4언더까지 했는데 후반에 4오버를 해서 이븐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마다 골퍼는 멘탈게임이란걸 절감하지요. 아무생각없이 치면 스코어가 잘 나오더라구요.

처음 나간 라운딩도 잊을 수 없죠. 종원씨랑 갔는데 그린에 퍼팅하러 올라갔는데 마커를 갖고 가지 않아 500원짜리 동전을 봤지요. 반대편 라인을 보러 간 사이 어프로치하고 올라온 종원씨가 돈 주었다 하면서 마킹을 치운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에게 있어 골퍼는 평생 자신을 자극시키는 매개체이다. 그는 진정한 골퍼고수이다. 그린컨디션을 빨리 파악하고 자기 페이스에 맞게 스코어를 유지해 가며 흐름을 타고 스코어를 줄이는데 그러면서도 유쾌함과 배려가 있다.

가수로의 또다른 도전 골퍼는 유독 다른 종목에서 전향한 선수가 많은 편이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추앙받는 베이브 자하리아스(미국)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육상 선수 출신이다. 1932년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에서 80미터 허들 세

“저는 맞춤형 골퍼를 칩니다. 상대방이 투어 또는 세미프로이면 저도 긴장을 하며 집중해요. 그러면 스코어도 좋습니다. 동호회사람들과는 다르죠.”

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고 투창에서도 올림픽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높이뛰기에서는 연장 끝에 은메달을 땀다. 2년 뒤 골프 선수로 전향한 자하리아스는 그야말로 천하무적이었다. 36세라는 늦은 나이에 프로 무대에 뛰어든 그녀는 메이저대회 10승을 포함해 41승을 올렸고 상금왕 두번을 차지했다. 그녀는 AP가 선정하는 올해의 여성 운동선수에 6번 뽑혔는데 한번은 육상 선수였고 세번은 아마추어 골프 선수, 그리고 두번은 프로 골프 선수 자격이었다.

특급모델출신 방송인 안계범이 2016년을 맞는 각오는 남다르다. 작년 9월에 가수로 데뷔해 '특급사랑', '천가지'라는 곡을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큰 키와 멋진 옷맵시에서 나오는 춤사위로 트로트계를 평정하겠다는 다짐이 엿보이는 곡들이다.

"'특급사랑'은 가정에 딸밖에 모르는 딸바보가 있듯이 사랑하는 사람밖에 모르는 애인바보의 이야기이고, '천가지'는 가사에 천가지꽃들과 천마리새들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이를 위해 그 어떤것도 해줄 수 있고 해주고 싶다는 내용이에요. 두곡 다 '뿐이고', '무조건', '자옥아'로 유명한 박현진 선생님의 곡이죠. 모델출신 방송인에서 올해는 노래하는 가수 안계범으로 불리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몇 년전 자선골프대회 뒤풀이 행사때 음악에 맞춰 춤추던 그를 본적이 있다. 긴 팔다리로 흥겹게 춤추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가수로 데뷔한 것이다. 원래 가수가 꿈이었다고 한다.

안계범은 마당발이다. 그래서 SNS엔 늘 지인들과 어울리며 찍은 사진들로 넘쳐난다. 지인들이 그에게 받은 앨범을 자랑하며 앨범 홍보도 해준다. 한마디로 그의 지인들 모두 그의 팬이다. 그에게 인맥관리 비결을 물어오는 사람도 많다. "사람이 어렸을 때 산수를 배우죠. 더하

기, 빼기, 곱하기 후에 나누기를 맨 나중으로배우죠. 나이를 먹을수록 어려워지는게 나눔입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나누기를 가장 나중에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를 못하면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비결이랄 건 없지만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무엇을 하던간에 나누기를 못하면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열정이 냉정으로 가지 말자'는 철학을 갖고 생활했던 안계범. 열정이 냉정으로 가는 것 만큼 인생에 있어서 슬픈게 없다는 그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새싹이 나지 않는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음반을 낸건 인생에 있어 또 다른 도전입니다."

딸바보 아빠의 넘치는 부성애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직업을 추천하는 건 드문일인데 아이들이 모델일에 꿈을 갖고 있어요. 아들은 190이 넘고, 딸은 175정도 됩니다. 하고 싶은걸 다 해보야 자신의 적성도 알게되고 인생의 자양분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신체조건도 되고 제 피를 물려받았으니 원한다면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 생각입니다."

딸바보 아빠의 피를 물려받은 딸 안예원은 작년에 패션모델로 데뷔 했다. 여러 패션화보에서 러블리한 페이스와 완벽한 비율로 눈길을 끌며 프로다운 표정과 포즈는 물론 다양한 아이템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며 워너비스타다운 면모를 뽐내고 있다. 그야말로 '부전녀전'이다. 특급 모델이 되기 위한 조건도 아까지 않는다.

"제가 운동하면서 많이 들었던말 이기도 한데 먼저 인간이 되라는 거죠. 트렌드는 계속해서 바뀌니까요. 제가 활동할 당시에는 근육질에 큰 체격을 선호했는데 요즘은 유려피안스타일로 변했습니



안예원은 작년에 패션모델로 데뷔 했다. 여러 패션화보에서 러블리한 페이스와 완벽한 비율로 눈길을 끌며 프로다운 표정과 포즈로 워너비스타다운 면모를 뽐내고 있다.



다. 마르면서도 근육질인 몸매를 선호하죠.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운동은 빼놓지 않고 시키고 있어요. 저도 평소에 몸관리를 열심히 해요. 친한 분들이 이정용, 정종철, 조영구씨 등인데 저도 자극받아 더 관리를 하게 됐지요. 저는 보통 1시간 정도 짧고 굵게 운동하고 사우나를 합니다." 그만의 패션팁도 빼놓지 않는다.

"저는 한 브랜드만을 애용하는 편이에요. 디자인 실장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을 모두 섭렵하고 있어요. 브랜드에서는 좀 더 좋은 핏을 위해 내놓는 제품들이기에 매치해 보면 특징도 알게되는데 고수의 패션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나이키 골프, 혁신적인 스타일의 SS16 폴로 셔츠 출시

나이키 골프(대표: 박성희)가 본격적인 골프 시즌을 앞두고 투어 레벨의 퍼포먼스와 개성있는 스타일을 담은 SS16 폴로 셔츠 3종을 출시한다. MM 플라이 블레이드 폴로와 MM 플라이 롤 폴로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넥 라운드 부분에 칼라의 모서리 깃을 제거한 새로운 디자인의 폴로 셔츠다. 칼라가 목에 거슬리지 않아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칼라 끝 부분이 늘어지지 않아 세련된 골프 룩이 가능하다. 특히, MM 플라이 블레이드 폴로는 로리 맥길로이의 인사이트를 반영해 1겹의 블레이드 카라를 적용하고 핏감을 극대화 시킨 것이 특징이다. MM플라이 프레이밍 커맨더 폴로는 기본 스타일 폴로 셔츠로 목 뒤에 땀이 차지 않도록 퍼포레이티드 홀을 배치하고, 투어 선수들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 취향을 반영했다. 세 가지 타입의 폴로 셔츠는 나이키닷컴(Nike.com/golf)과 나이키 골프 공식 판매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세인트나인 '세인트나인 Extreme Soft' 출시

화려한 동물 캐릭터로 유명한 프리미엄 골프볼 브랜드 세인트나인에서 신제품 세인트나인 Extreme Soft를 출시했다.

세인트나인 Extreme Soft는 부드러운 타구감에 비거리 성능을 더한 볼이다. 물론 세인트나인만의 특징인 독특한 동물 캐릭터가 새겨져 있다.

세인트나인 Extreme Soft는 드라이브 샷에서 저스핀으로 일정한 방향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하였고, 아이언 샷에서는 부드러운 타구감과 함께 정밀한 거리감을 실현하여 숏게임 퍼포먼스를 극대화하였다. 일관된 방향성과 안정적인 비행탄도를 보장하는 336 딥플 또한 세인트나인 Extreme Soft의 놀라운 비거리를 돕고 있다. 세인트나인 Extreme Soft와 함께한다면 중급 골퍼들도 싱글 골퍼의 비거리와 정확성에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게 된다.

세인트나인 Extreme Soft의 출현이 올해 골프용품 시장에 등장한 많은 신제품들 중에서 유독 주목 받는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세인트나인이 보여준 놀라운 매출 증가 때문일 것이다. 2012년 국내 출시된 세인트나인은 2013년 이후 매년 2배 이상 성장이라는 기록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불황에 시달리는 국내 골프용품 시장에서 단연 압도적인 실적이다.

기존의 M, V, Q, X에 이은 Extreme Soft의 출시로 세인트나인의 제품 라인업은 한층 탄탄해졌다. 신제품의 출시가 세인트나인의 놀라운 성장세에 가속도를 붙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골프업계는 긴장감 속에 지켜보고 있다.

캘러웨이골프, 크롬소프트 볼 2016년형 출시

지난해 '소프트볼'로 골프볼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던 캘러웨이골프의 '크롬소프트'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2016년 모델을 출시했다.

'부드러운 골프볼은 멀리 가지 못한다'는 상식을 깨며 많은 골퍼들에게 사랑을 받은 크롬소프트의 비밀은 바로 캘러웨이골프만의 코어 기술인 '소프트 패스트 코어'다. 소프트한 타구감은 물론 빠른 복원력으로 에너지 손실을 줄여 뛰어난 비거리를 제공하는 이 코어에 외부 코어가 하나 더 추가돼 2개가 된 것이 특징이다.

'듀얼 소프트 패스트 코어'는 드라이버 샷에서는 낮은 스핀과 빠른 볼 속도로 비거리를 증가시켜준다. 또한 100야드 내외의 샷에서는 더욱 많은 스핀을 만들어 정확한 컨트롤을 제공한다. 마치 하이브리드 차량이 2개의 엔진으로 출력은 물론 연비까지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처럼 듀얼 소프트 패스트 코어는 부드러운 타구감과 뛰어난 비거리는 물론 정확한 컨트롤을 동시에 제공한다. 또한 부드러우면서 뛰어난 내구성으로 2015년 크롬소프트에서 검증된 우레탄 소재의 소프트 듀라스핀(DURASPIN) 커버를 사용, 그린 주변에서 투어 레벨의 컨트롤을 선사한다.

한편, 캘러웨이골프는 출시를 기념하여 뉴 크롬소프트 구매 고객에게 한정수량으로 동봉된 퍼포먼스센터 이용 50% 할인권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02-3218-1900



유컴테크놀러지, 세계최초 기술 담은 골프거리측정기 3종 출시

(주)유컴테크놀러지 (<http://new.voicecaddie.co.kr> 대표 김준오)가 2016년 세계최초 기술을 적용한 골프-IT기기 신제품 3종을 출시했다. 세계최초 화면에 그린언플레이션이 보이는 보이스캐디 워치 T3, 초소형 아시안핏 사이즈의 보이스캐디 레이저 L3, 그리고 27g의 초경량 골프밴드 B1이 바로 그것이다.



세계최초 그린언플레이션, 국내최초 컬러 LCD탑재

보이스캐디 워치 T3

3월 말 출시되는 '보이스캐디 워치 T3'는 세계최초 그린 언플레이션 기능이 탑재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린 주변의 헤저드, 벙커 및 경사도의 정보를 LCD 화면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골퍼들의 정확한 그린공략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세계형 거리측정기 최초 탑재이다. 더불어 수평 거리와 높이를 감안한 보정거리(슬로프기능)를 안내해 골퍼가 사용할 클럽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존 T2 제품의 장점이었던 세계최초 스마트스코어링

기능 역시 그대로 탑재되어 별도의 스코어 카드 확인 없이도 자신의 스코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각종 첨단기술로 무장한 보이스캐디 T3는 전세계 4만여 개 골프 코스 정보가 모두 내장되어 있고, 코스 및 데이터 업데이트는 보이스캐디 공식 홈페이지에서 평생 무료로 제공된다.

정밀함의 Legend 레이저 거리측정기 보이스캐디 L3

2월 말 출시된 '보이스캐디 레이저3'는 기존 제품 대비 경량화 된 바디로 한 손만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최적화 된 그림감을 보여주는 유

선형 바디 디자인을 채택하였으며 기존 L2 제품보다 더욱 개선된 선명도를 자랑하는 광학 6배율의 클리어렌즈를 탑재하여 측정의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기존 고가의 수입산 거리측정기에만 있던 원터치 핀시커, 줄트&블링킹 기능 및 슬로프 보정거리 및 방수기능이 탑재되어 L2에 이어 더욱 완벽한 아시안핏 레이저 거리측정기로 재탄생하였다.

스타일의 Legend 궁극의 가벼움 보이스캐디 B1

2월 말 출시된 보이스캐디 B1은 27g의 초경량 밴드형 거리측정기이다. 가벼움을 극

대화한 이 제품은 골퍼들에게 무게로 인한 이질감 및 피로도 없이 상쾌한 스윙이 가능하게끔 이어준다. B1은 '투터치' 기능의 탑재로 심플하게 바디를 두 번 터치하면 작동하여 순간의 클럽선택이 필요한 골퍼들을 대상으로 용이하게 출시되었다. 또한 '오토슬로프기능'을 탑재, 자동으로 수평거리와 높이를 감안한 보정거리를 제시하여 골퍼가 사용할 클럽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모든 것이 터치로 컨트롤이 가능한 보이스캐디 B1은 심플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스타일리쉬한 골퍼들에게 안성맞춤이다.

문의:1577-2862 www.voicecaddie.com

OK Golf

상위 1% 골퍼를 위한 싱크로율 99%의 초정밀 시스템!
100% 리얼리티 필드를 구현하는 유일무이한 시스템!

오케이온골프 스피ن시스템

카메라센서라고 다 똑같은 센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카메라 센서는 볼의 스피ن량을 추정치로 계산해서 사용합니다. 정확한 실측에 의한 스피ن량을 측정하고 그 스피ن량을 실제 움직임과 똑같이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오케이온골프만의 기술력입니다.

초정밀고속 카메라

- 5대의 카메라가 매킹볼의 스피ن량을 입체적으로 실측하여 백스핀과 사이드스핀량에 따른 모든 구질을 표현합니다.
- 헤이드, 드로우, 슬라이스, 혹은 뽀른 피치 런, 러닝어프로치, 로빙 어프로치 등 승계임도 완벽하게 구현됩니다.
- 값으면 깎이는 대로 풀리면 '들리는 대로' 피맛한 손맛을 그대로 재현하여 그린에서 볼을 멈추거나 백스핀을 걸 수 있습니다.
- 자유로운 볼의 위치로 편안한 라운딩을 제공하며 타석에 놓출된 센서가 없어서 필드에서 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착우타석 검출)
- 퍼팅 연습 시 런치앵글, 방향각, 사이드 스핀을 분석하여 최적의 퍼팅 스트로크를 완성시켜 드립니다.

Lighting-Halo 엔진

- 실제 사정처럼 느껴지는 첨단 그래픽 효과
- Full HD(1920*1080)를 베이스로 제작하여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 공정한 러프의 질감과 헤비러프의 깊은 풀까지 자연스럽게 렌더링 됩니다.
- 설치 환경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로 사공이 가능하여 라운드 스크린도 지원합니다.

N 자연을 담은 "네이처" 프로그램

- 물리학, 공분광학, IT공학, 프로그래밍의 전문 지식이 곳곳에 녹아있는 첨단 프로그램
- 지형의 고저, 중력, 바람의 저항, 풀의 저항, 지공의 충돌계수, 지형의 단상계수 등 자연의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하여 실제 필드에서 플레이하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 새로운 MSBS 엔진 적용! 정확한 임팩트의 피팅한 손맛을 그린에서 느껴보세요. 볼이 스피ن량에 따라 살아서 움직입니다.

러블리 캐디와 함께 라운딩 하세요~

- 안락한 음성지원으로 라운딩의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 상황별로 어떤 샷을 공략하는게 좋은지 알려줍니다.
- 특별한 미니 캐디의 간단한 원포인트 레슨으로 골프 실력을 늘리세요.

OK은골프 네이처

맞짱 대결

네트워크 게임으로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상대방과 1:1로 대결하는 방식
공의 움직임, 영상, 채팅을 게임 안에서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게임.

★ 기능

- 원격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상대방과 1:1 대결 진행되고 함께 라운딩 하는 듯한 느낌으로 상대방의 실시간 공의 움직임, 영상, 채팅(이모티콘, 상용구) 기능 지원 (안드로이드 모바일용만 현재 지원 가능)
- 대전상대 영상 지원(상대가 모두 카메라가 있을경우)
- 맞짱대결 플레이어
 - 가) 맞짱 플레이어 참여(맞짱플레이어는 비슷한 핸디캡을 가진 가상 플레이어로 언제 어디서든 맞짱을 풀 수 있게 도와줍니다.
 - 나) 맞짱 플레이어와 대전을 하게 되면 동영상과 이모티콘이 서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다) 맞짱 플레이어의 아이디는 okxxxx 입니다.



(맞짱 대결 상대)



(함께 플레이하는 모습)



(이모티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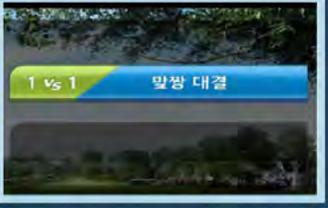


(앱과 연동)

★ 게임 참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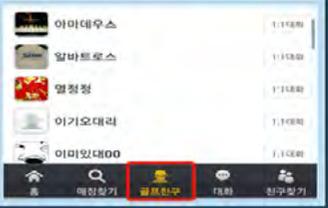
- 1 게임 메뉴 **동시타입** 선택
- 2 1 VS 1 맞짱대결





★ 앱 채팅

- 1 OK은골프 앱 메뉴에서 **골프친구** 선택
- 2 맞짱대결에서 유저 선택하여 채팅





- 게임 티샷 후 자동친구 추가되어 친구 등록 가능
- 게임 중반 플레이어가 자동친구 등록을 원치 않을 경우 '앱, 홈페이지' 환경설정에서 '해제' 로 변경

- 3 앱에서 채팅 시 이모티콘, 상용구는 상대 게임화면에 표시됨.



★ 룰렛

1. 총 플레이 시간

구분	Par 3	Par 4	par5 (par6)
시간	2분	2분 30초	3분 30초

- 총 플레이 시간이 지나면, 30초 3회 추가시간을 줌.
- 30초 3회가 지난 때마다 +1 벌타 발생
- 시간 제한 벌타 4회일 경우 상대 플레이어에 피해 주는 행위로 간주, 게임 강제 종료 처리

★ 승점률

= 18홀 완료 시

구분	승리	무승부	패배	게임중도포기
승점	+3	+1	0	-1

- 2연승시 계산: 승점(+3) + 2연승(+2) = +5점
- 4연승시 계산: 승점(+3) + 4연승(+4) = +7점

앱에서 맞짱대결 부킹 안내

바로가기 >



2016년 01월 04일 ~ 2016년 04월 03일

위클리 신스태이بل포드 챔피언십

핸디캡이 필요없는 점수제 방식의 새로운 대회입니다.
각 스코어에 따른 점수를 획득해서 점수를 많이 획득한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대회 기간 중에 참여한 라운딩 스코어들의 총합이 높은 사람이 우승하게 됩니다.

신스태이블포드 룰

Points	Strokes taken in relation to par
+8 points	알바트로스 (-3)
+5 points	이글(-2)
+2 points	버디 (-1)
0 points	파(이븐)
-1 points	보기 (+1)
-3 points	더블보기이상 (+2 혹은 이상)

출인원시 추가 점수 : +5점
18홀 플레이 시 추가점수 : +10 점

* 월 왕중왕 전 : 매주 우승자 4명중 성적 상위 2명이 맞짱대결로 월 왕중왕전 수상

대회 핸디캡 : 주우승자 -20, 준우승자 -10 (*3개월마다 초기화)
참가자격 : OK은골프 준회원 이상 (매장주, 매장관련 종사자 제외)
참가비 : 없음
로컬룰

1. 게임 영상 미존제시 시상 제외
2. 2개 계정 이상 계정 소유시 시상 제외
3. 수상자의 경우 동영상이 오픈 됩니다.
4. 게임 영상에서 세컨샷을 티 위에서 한 영상 존제시 실격처리 됩니다.
5. 동점시 참가횟수, 스트로크 최저타, 백카운터

주수상

1등	2등	3등	7위	통기	니어
10만 포인트	5만 포인트	3만 포인트	3만 포인트 (행운상)	2만 포인트	2만 포인트

제41차 코스챔피언 핸디캡 대회

2016년 03월 01일 ~ 03월 31일

코스챔피언 핸디캡 대회란?
각각의 코스에서 유저 핸디캡을 적용한
최저 스코어 1인에게 10만 포인트를 시상하는 대회입니다.

핸디적용 하한선 -6, 상한선 +4

- 106. 네이처 기흥 CC
- 107. 네이처 휘슬링스트레이츠 CC

- 참가자격: OK은골프 준회원이상 (OK은골프 종사자 제외)
- 참가비: 1만 2,000p (게임 참가 후 첫 티샷시 포인트 차감됩니다)
- 게임환경
 - 티 위 치: 남(화이트), 여(레드)
 - 올 아 웃: 더블파
 - 페팅 레벨: 대회모드
 - 그린난이도: 보통
 - 바 램: 강하게6m/s
 - 칸 시 드: 1.3m
- 유의사항: 플레이어등급은 두마프로 설정



SJ골프아카데미 조지현 프로, 일정하게 퍼팅하는 방법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을 알리는 3월이 왔다. 하지만 3월에는 그린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일정한 거리를 맞추기 힘들어 겨울 골프연습에 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이번 시간은 잘못된 스트로크의 모습과 올바른 퍼터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본다.



몸의 중심을 잡고 스트로크 하는 모습

자연스러운 스트로크가 나오고 손만이 아닌 몸과 팔 손이 일체감 있게 다닌다. 이렇게 연습을 하다보면 상체와 손이 항상 같이 다니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

퍼터헤드 방향에만 너무 의존된 연습보다는 전체의 느낌을 느끼며 스트로크 연습을 해 보면 자연스럽게 힘도 빠지고 좋은 타이밍과 박자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조지현프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KLPGA 정회원
전국체전 강원 대표
강원도민체전 개인 및 단체 우승
그랜드파코메리 점프투어 6차전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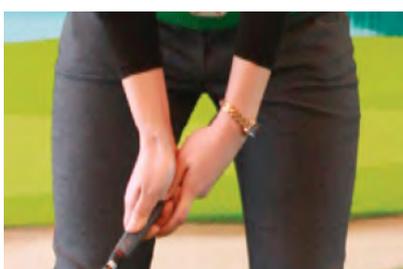


어깨가 많이 위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

너무 팔이나 손을 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로봇처럼 불편해 보이는 스트로크이다.

손이 몸 밖으로 나간 모습

몸에 팔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일정한 거리를 맞추기 힘들게 된다.



과다한 손목사용

헤드무게로만 스트로크를 했다가 볼을 맞추려는 생각이 강하여 발생한다

재규어 코리아,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 올 뉴 XF 출시

ALL - NEW JAGUAR XF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대표 백정현)에서 출시한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 올 뉴 XF는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의 혁신적 신차의 중심에 있는 핵심 전략 모델이다.

올해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기존 모델을 강화하는 동시에, 크로스오버 모델인 F-PACE와 컨버터블형 SUV인 레인지로버 이보크 컨버터블 등 새로운 세그먼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고객 우선 주의(Customer First)를 실현하기 위해 AS 네트워크 확장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한다. 2017년까지 총 27개 이상의 서비스 센터, 올해 말까지 전국에 최대 7개의 인증중고차 전시장 설립을 추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된 트레이닝 아카데미를 통해 업계 최고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년 계획 발표와 함께 선보인 신차, 올 뉴 XF는 재규어가 이룬 혁신과 나아갈 미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모델이다. 출시 이후 8년만에 첫번째 풀 체인지 리프를 이룬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으로 진보된 디자인과 혁신적인 파워트레인, 새로운 첨단 테크놀러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뤄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동급 세그먼트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올 뉴 XF는 총 7가지 세부모델로 2.0리터 인제니움 디젤 엔진을 탑재한 '20d 프레스티지(Prestige)'와 '20d 포트폴리오(Portfolio)', 2.0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의 '25t 프레스티지', '25t 포트폴리오', 3.0리터 V6 터보 디젤 엔진의 '30d 포트

폴리오', 3.0리터 V6 슈퍼차저 가솔린 엔진의 고성능 모델인 '35t AWD R-Sport', 최상위 모델인 'S AWD'로 구성된다.

올 뉴 XF의 전 모델에는 강력한 성능과 반응성, 뛰어난 정숙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디젤과 가솔린 엔진이 탑재됐다. 특히, 재규어의 혁신적인 파워트레인 기술이 집약된 인제니움 디젤 엔진은 재규어에서 자체 제작한 고성능, 고효율 엔진이다. 첨단 알루미늄 소재를 통해 경량화와 높은 연료 효율성을 실현했으며, 180마력의 최고 출력과 최대토크43.9kg.m의 성능을 자랑한다.

올 뉴 XF는 알루미늄 인텐시브 모노코크(aluminium-intensive monocoque) 구조와 최첨단리벳 본딩(Rivet-Bonding) 테크놀러지를 활용해 경량화와 강성 모두를 확보했다. 차체 중량은 기존 XF 대비 약 190kg 가벼워졌으며, 차체 강성은 28% 이상 강화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완성된 50:50에 근접한 최적의 차량 무게 배분은 XE와 동일하게 역대 재규어 중 가장 낮은 Cd 0.26의 공기저항계수를 실현했다.

올 뉴 XF의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 언어는 재규어가 지향하는 미래를 보다 확실하게 보여준다. 더욱 가파르게 꺾인 프론트 엔드와 길어진 휠베이스, 날렵한 차체 라인은 올 뉴 XF의 역동성과 강력한 성능을 암시하며, 새롭게 디자인된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는 방향 지시등 기능이 추가된 시그니처 J-블레이드 주간주행등과 함께 도로 위에서 더욱 강렬한 존재감을 완성한다.

올 뉴 XF는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의 명

성에 걸맞게 여유로움과 정교함, 품격이 어우러진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완성했다. 특히, 뒷좌석은 40:20:40 폴딩 시트가 적용되어 부피가 큰 물건을 쉽게 싣고 내릴 수 있다. 또한 15mm 늘어난 레그룸, 24mm 늘어난 무릎공간, 27mm 높아진 헤드룸으로 한층 여유로워진 실내 공간을 제공해 뒷좌석 승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최고급 품질의 가죽으로 마감된 시트, 독특한 로테이팅 에어벤트와 대시 보드를 가로지르는 강렬한 마감의 알루미늄 피니쉬, 은은한 형광 블루 컬러의 조명은 세련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한다.

올 뉴 XF에 적용된 최고 수준의 다양한 첨단 테크놀러지는 럭셔리 카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 새롭게 적용된 '인컨트롤 터치 프로(InControl™ Touch Pro)'는 최첨단 10.2인치 터치스크린과 함께 혁신적 반응속도와 향상된 멀티태스킹 기

능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는 12.3인치 Full-HD 가상 계기판과 선명한 이미지의 레이저 헤드업 디스플레이 시스템 등은 올 뉴 XF를 역대 재규어 중 가장 진보된 모델로 완성한다.

올 뉴 XF는 다양한 드라이빙 다이내믹스 시스템을 탑재해 어떠한 드라이빙 조건에서도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이상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재규어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오프로드 관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전자형 프로그레스 컨트롤(All Surface Progress Control)과 자체 개발된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라인 다이내믹스(Intelligent Driveline Dynamics)를 핵심으로 하는 혁신적인 온-디맨드(On-Demand) 방식의 AWD 시스템은 최적의 트랙션을 유지하며 악조건의 날씨와 미끄러운 도로 상황에서도 유연하고 안전한 주행을 선사한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중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또한, 알콜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CALLAWAY

CELLAR SELECTION



골프의 전설 캘러웨이!

와인의 전설 캘러웨이!

골프의 전설 엘리 캘러웨이씨의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는 캘리포니아 와인



EASY WINE CO.,LTD T. 02. 308. 2134

STITCH™ HEADCOVERS



Stitch Golf 헤드커버는 미국 North Carolina에서 100% 고급 소가죽으로 제작된 명품 수제커버입니다.

www.stitchgolf.co.kr

본사 (주)레익스타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299-198 B동 B1

TEL 02-401-7054

Balance Renovation

REXY BALANCE GOLF SOCKS

KPGA 공식파트너
한국프로골프협회 공식지정 양말
특허제10-1102167호

한국프로골프협회가 공식지정한 발명특허가능성골프양말

다양한 기능성을 갖춘 렉시 골프 양말은 착용만 해도 비거리 UP, 스코어 DOWN 효과를 볼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템입니다. 내일 라운딩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REXY를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p>정확한 핏백트 신발의 모양과 구조를 매우 신중하게 분석하여 특수 소재를 사용하여 핏백트와 안정감을 확실하게 합니다.</p>	<p>비거리 증대 화제를 견고하게 단결시켜 면안면에 핏백트와 정확한 핏백트가 가능합니다.</p>	<p>정확한 피팅 화제를 견고하게 단결시켜 상하안면의 핏백트가 가능합니다.</p>	<p>스웨이 방지 양말의 뒤꿈치, 무릎의 특수 소재가 화제를 견고하게 단결시켜 몸의 흔들림을 잡아줍니다.</p>	<p>슬라이스 방지 원형 양말의 특수 소재로 인해 원형 화제의 열성을 방지합니다.</p>	<p>발의 피로 감소 족저근막으로 인하여 라운딩 후 발이 편안합니다.</p>
--	--	--	---	--	---

Balance Renovation REXY (주)렉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53-5 해인빌딩 2층 판매처: 전국 신세계백화점 골프샵, 전국 골프장 프레스샵
TEL: 02-3432-4394 (대표), FAX: 02-3432-4399 www.rexysport.co.kr



Transitions

눈 보호와 편리함의 만남, 니콘 트랜지션스

실내에서는 안경렌즈로 편하게, 실외에서는 선글라스로 눈보호와 스타일을 한번에



- ✓ 눈 건강 | UV로부터 100% 눈 보호 + 탁월한 눈 피로 감소 기능
- ✓ 편리함 | 하나의 렌즈로 실외와 실내 생활을 동시에!
- ✓ 지속성 | 높은 대비감도의 브라운, 그레이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스타일리쉬 그린!

facebook.com/nikonlenswear
www.nikon-lenswear.co.kr

<2016 상반기 모집요강>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CEO실전골프 마스터과정

골프 티칭의 마스터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p>책임 교수</p> <p>김해천 SBS골프 해설위원</p>	<p>지도 교수</p> <p>에디 조 SBS골프 레슨프로그램 JTBC골프 레슨프로그램</p>	<p>특강 교수</p> <p>준 림 SBS골프 레슨프로그램 JTBC골프 해설위원</p>	<p>필라테스</p> <p>사사 정 SBS골프 해설위원 사사 필라테스 대표</p>
--	---	--	---

- ★ 전체 교수진 美 PGA 정회원(Class A)
- ★ 대한민국 골프산업 "골프지도자부문" 大賞 수상
- ★ 미국 골프다이제스트 세계 50대 골프코치 선정

◎ 본 과정은,
-골프에 열정을 가진 품격있는 골퍼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골프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수와 원우가 하나 되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곳입니다.
-품격있는골프와 함께 즐겁고 명랑한 파티가 있는 곳입니다.
-수료 후에도 원우들과 함께 즐겁게 라운딩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체 동문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벗이 되어주는 곳입니다.

◎ 지원대상 -골프를 존중하며 위 사항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분, 40명

◎ 교육기간 - 2016년 2월 27일~7월 말(매주 목요일)

◎ 특 전 -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CEO실전골프 마스터과정 수료증 수여
본 과정 발급 골프티칭지도자 인증서 수여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골프과정 총동문회 회원자격 부여
수료 후, A/S교육 실시(강의 및 스코어 교정 레슨 참석가능)
외부행사 본 과정 교수 초청시 20% Off

신청 및 문의 ☎1688-8827

배필효 교학처장 010-6264-5393

신학원학 경희골프교육원

